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June 2014 vol.111

이달의 이슈

BS산업의 현황 및 과제

정선영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산업육성 전략

이동희

생생리포트

마로니에공원 활용 방안

안창섭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6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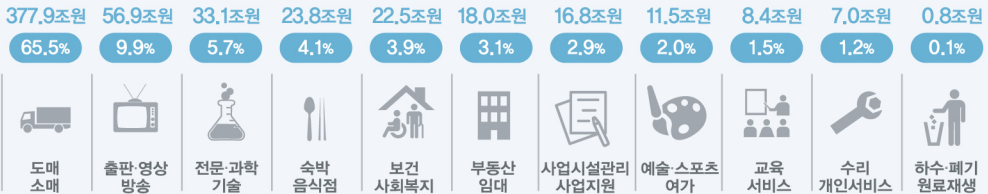
서울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76.6조원이며 부가가치 비중은 전산업 중 91.7%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0.1억원으로 전국의 1.8배

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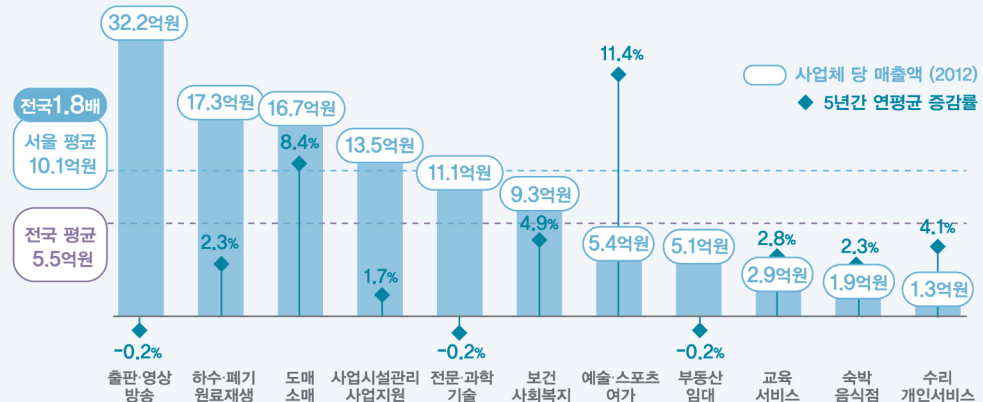
서울 서비스업
매출액 총액(2012)
576.6조원

부가가치 비중
91.7%

자료 : 지역소득조사 (통계청, 2012)



서비스업 부문별 사업체 당 매출액



서울경제

2014 vol.111

6

이달의 이슈 3 **BS산업의 현황 및 과제**
정선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2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산업육성 전략**
이동희(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생생리포트 23 **마로니에공원 활용 방안**
안창섭(종로구청 문화과 문화사업팀)

인포그래픽스 31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7 **요 약**
39 **생 산**
41 **소 비**
42 **고 용**
45 **물 가**
46 **부동산**
48 **금 융**
56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BS산업의 현황 및 과제¹⁾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sjung@bok.or.kr

1. BS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던 시기를 지나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등 산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조화와 융합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조화와 융합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연관되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서비스업(Business Services, 이하 BS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1) 본 원고는 정선영(2013)을 수정·요약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20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BS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 예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²⁾에 해당하는 지식집약적 BS산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은 제조업 등과 연계될 경우,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과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료: 정선영(2013)

<그림 1> 지식집약적 BS산업을 통한 기술 혁신 파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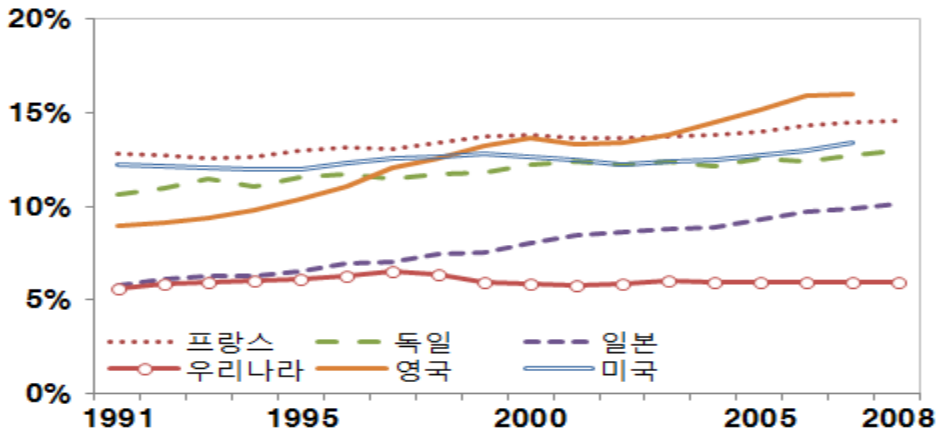
성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도 BS산업의 육성은 중요하다.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전통적 서비스부문이 쇠퇴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고용 흡수력이 감소하는 반면,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외주화(Outsourcing) 등에 힘입은 BS산업 부문의 고용 흡수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BS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식집약적 BS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 부문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고급일자리 창출과 고학력 취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고용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컴퓨터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처리, 연구개발, 법률·회계·감사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광고·디자인·마케팅 서비스,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되며, 자본이나 중간재보다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 BS산업 현황과 문제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서 BS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BS산업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70년 0.9%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5.4%로 높아졌고,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2.0%에서 2012년 9.3%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BS산업의 사업체 수는 1993년 전체산업대비 1.8%에서 2011년 3.4%로, 종사자 수는 1993년 2.9%에서 2011년 9.0%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BS산업의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S산업이 전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인 데 반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은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15%를 상회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BS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로 BS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BS산업의 서비스업 대비 비중을 살펴보아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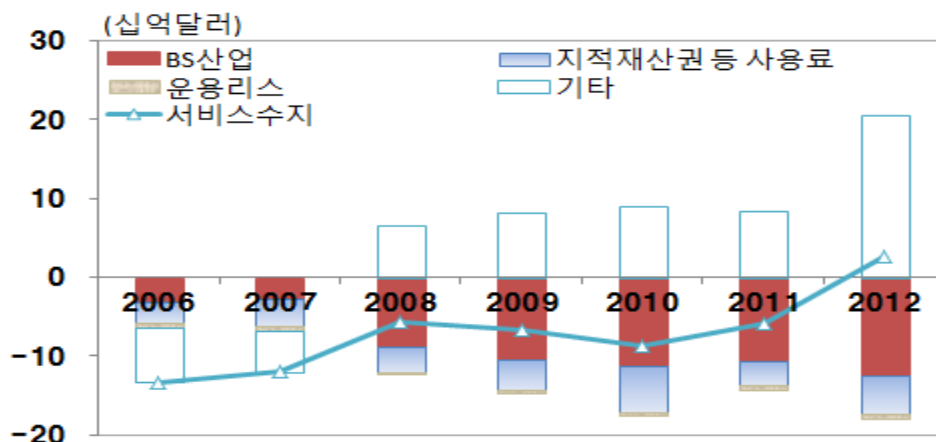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B

주: 실질 GDP 기준 비중임

<그림 2> 국가별 BS산업의 비중(전산업 대비)

우리나라 BS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국제수지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의 호조로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지가 적자인 요인으로는 여행수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의 적자 급증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고부가가치 중심의 BS산업에 해당하는 수지 적자는 2006년(30억 8,350만 달러)과 2012년(124억 6,250만 달러) 사이에 4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광고, 시장조사, 여론조사서비스수지와 기타서비스업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서비스수지 역시 꾸준히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역시 지속적인 적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해당부문의 아웃소싱을 주로 국내가 아닌 외부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BS산업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BS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운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해당 부문을 육성하고 소비할 만한 잠재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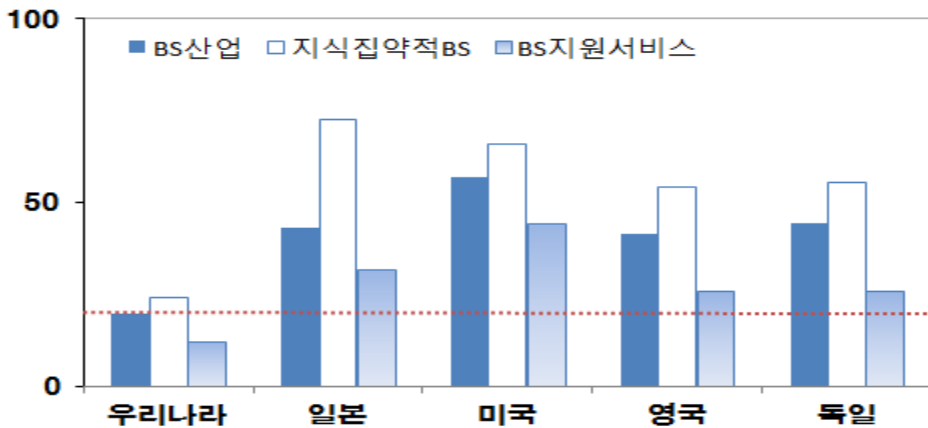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주: 국제수지 세분류 중 컴퓨터서비스수지, 유자·보수 서비스수지, 기타 사업기술 전문서비스수지를 합한 값을 BS산업으로 재분류

<그림 3> 서비스수지의 구성(단위: 십억달러)

한편 BS산업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국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낮고 기업의 규모나 기술 혁신 측면에서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BS산업의 성장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낮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BS산업의 저생산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BS산업의 생산성이 높아 제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산업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BS산업의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BS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는데 이는 지식집약적 BS산업과 BS지원서비스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지식집약적 BS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자료: EUKLEMS

주: 1. 1995년 가격기준, PPP환율 적용

2.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수 기준

<그림 4> 2005년 BS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단위: 천US달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BS산업 활용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다.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13%에서 2009년 14%로 큰 차이가 없고, BS산업 중간투입 비중은 1990년 2%에서 2009년 5%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의 외주 관행과 연관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기업이 국내에 있는 서비스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외주를 회피하고, 낮은 외주 비율은 다시 서비스업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저생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Guerrieri and Meliciani(2004)에 따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기제품, 통신 장비와 화학제품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이러한 산업에 특화된 국가들의 생산자서비스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가전자, 화학 등의 주요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상으로는 생산자서비스, 특히 BS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므로 BS산업이 제조업과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3. BS산업 생산성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 서비스 콘텐츠의 상품화가 용이하고 높은 교육수준,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BS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BS산업의 발전은 정체 상태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BS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하의 다면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규모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요소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홍보나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외국계 혹은 대형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정종인 외, 2007). 기존 연구³⁾에 따르면 규모 확충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는 IT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IT서비스업 외의 타 BS산업 부문에서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정선영(2013)

다음으로 우수 인력 유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본은 지식이 체화된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므로 전문성과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이를 위해 BS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인력양성 교육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태의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법률·회계·광고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BS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에 비해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자본과 같은 물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자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인적자본 확충과 기업규모의 확충과 더불어 자본집약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본 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4. 서울시 BS산업 정책

BS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BS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집중형 산업의 한 부문으로 BS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2009년 서울BS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 지역의 BS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제조업 기반은 약화된 반면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BS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질적 수준은 국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BS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BS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BS산업 부문 중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조사업, 컨설팅업, 엔지니어링업, 광고업 등 4대 BS업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S산업 육성을 위해 크게 BS산업 종사자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과 BS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⁴⁾. 전자에 해당하는 정책에는 BS산업 전문 인력 양성, BS산업 인프라 운영 및 전문 콘텐츠 제

4) 서울특별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백서(2013) 참조.

공, BS산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제품-서비스 R&D 지원 등이 있으며 BS기업의 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컨설팅 지원, 성공 창업 리서치 지원, BS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이 있으며 BS의 시장 수요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BS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적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BS허브 인터넷포털을 개설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야별로 분산된 BS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 전문자료, 기업DB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BS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S허브포털의 제공정보는 크게 지원사업 정보, 전문정보, BS기업정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원사업 정보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BS지원사업과 참여기업의 실적정보를, 전문정보에서는 국내/해외동향 보고서, 지식인 스콜라, 교육/세미나 자료를, BS기업 DB에서는 서울시 약 만여 개의 BS기업 정보를 포괄하여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BS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BS산업을 육성하는 일련의 노력과 효과는 자연스럽게 제조업 등 BS 수요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BS산업을 육성은 해당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향유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BS산업의 발전이 서울시 경제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수요창출 지원, 기업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강조할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종인 BS산업은 인적 자원의 총량과 질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우수한 인적 자원이 BS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정선영(2013),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6(4), 1659-1690.
- 정종안·박장호·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7-15, 한국은행.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 통계청(2005), 서비스업총조사.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한국은행, 국제수지.
- EUKLEMS DB.
- Guerrieri, P. and V. Meliciani(2004),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oducer Services,” mimeo.
- OECD, STAN DB.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산업육성 전략



이동화*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dhlee95@kiet.re.kr

1.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최근 국가 간 제조업 기술격차가 미미해지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제조 그 자체보다는 디자인, R&D 등 제조 이전의 과정과 마케팅, 유통 등 제조 이후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IT서비스, 디자인, R&D서비스 등 전문화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기업의 노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업(Business Service; BS)은 이러한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의 전형으로서 경제 전반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금융, 부동산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가치사슬 상의 중간 투입물로 활용되어 공급자와 수요기업,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 박사
- 현)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혁신평가단 위원
- 최근 연구: 국내 지식집약서비스업의 입지 패턴과 정책 시사점(산업연구원,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과제(산업연구원, 2013) 등

에서 발생하는 품질향상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활동” (OECD, 1999)을 말한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주로 타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업과 구별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총수요 중 70~80%(2005년 기준) 정도가 중간수요로 나타나 중간재제조업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정, 2009).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지식집약 비즈니스서비스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 연구개발(R&D)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서비스 - 전략 및 경영 컨설팅 - 회계, 세무, 법률 자문 - 마케팅 및 여론조사 - 기술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 직원훈련 및 헤드헌팅
			운영지원 비즈니스서비스 (Operational Business Services)	- 보안 - 시설관리 및 청소 - 행정 및 장부회계 - 인력파견 - 기타(번역, 콜센터 등)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배분 서비스	도·소매, 운수, 통신		
	개인 서비스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 개인서비스		
	사회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 Kox and Rubalcaba(2007)을 참조하여 작성

[그림 1]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영역 및 세부업종

특히, 지식집약 비즈니스서비스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지는 부문이다. KIBS는 연구개발(R&D) 서비스, 소프트웨어(SW) 및 컴퓨터서비스, 법률, 회계, 마케팅 및 광고, 경영컨설팅 및 인적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부문으로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격을 갖지만 지식의 투입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KIBS가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 및 고용의 증대효과나 타산업과의 연계효과 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0-2005년 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의 경제에서 생산자서비스가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0%에서 18%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그 비중 확대의 상당 부분은 KIBS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절반 이상의 신규 고용이 KIBS에서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2009).

KIBS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산업 규모와 성장률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1>와 같이 R&D서비스업을 제외한 KIBS의 매출액은 2011년 약 96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약 3.6% 정도의 낮은 수준이고, 2007-2011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전 산업의 성장률(11.7%)에도 미치지 못하는 8.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산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비중	연평균 성장률
전 산업	1,697,953	2,264,042	2,645,366	100.0	11.7
제조업	834,247	1,000,309	1,354,026	51.1	12.9
서비스업	718,798	1,074,412	1,096,043	41.4	11.1
KIBS	70,544	93,151	96,313	3.6	8.1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국내 KIBS의 수준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미흡하다. 2010년 기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73.3%)은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지만, 부가가치비중(58.0%) 및 중간재 투입비중(25.6%)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KIBS의 고용비중(4.9%), 부가가치비중(3.8%), 중간재 투입비중(1.6%)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주요국 서비스 부문의 고용, 부가가치, 중간재 투입 비중 비교(2010년 기준)

(단위 : %)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
고용 비중	서비스	84.3	73.8	78.1	68.9	81.2	73.3
	BS	13.3	14.3	14.8	12.7	17.4	9.3
	KIBS	7.4	7.6	7.2	8.1	8.6	4.9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	79.9	69.5	79.3	73.0	74.1	58.0
	BS	13.9	12.2	14.2	10.2	13.4	5.9
	KIBS	9.9	7.5	8.6	7.7	8.1	3.8
중간재 투입비중	서비스	63.2	45.1	51.8	42.4	49.2	25.6
	BS	8.1	8.0	13.0	8.1	9.5	2.2
	KIBS	5.7	5.4	8.7	5.4	6.6	1.6

자료: (해외) OECD STAN Database(ISIC Rev.4), (국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중간재 투입비중 = (서비스부문 중간재 투입액 / 총 중간재 투입액) × 100

2. 입지 특성과 국내 집적지 현황

비즈니스서비스업(특히 KIBS)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 구별되는 몇 가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요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중요한 입지요인이다. 비즈니스서비스는 결과물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간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Shearmur & Alvergne, 2001). 특히 교환되는 상당한 정보와 지식은 암묵적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대면접촉이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 접근성은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식투입 비중이 높은 몇몇 비즈니스서비스업은 종종 특정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Keeble & Nachum, 2002). 지식산업인 KIBS에서는 지식·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집단적 학습활동이 혁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사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관련조직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입지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내 KIBS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세부업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리적 집중 현상이 존재하며, 특히 비기술적이거나

창의적 지식이 중요한 업종일수록 그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동희·박지혜, 2013).

셋째, 대체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은 풍부한 정보와 지식의 넘쳐흐르는 대도시에 대한 입지 지향성을 보인다. KIBS와 같은 비즈니스서비스업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본은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에 필요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비즈니스서비스의 혁신에 필수적이다. 런던, 뉴욕과 같이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대도시에는 이에 필요한 노동력,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 수요고객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서비스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Rubalcaba et al., 2013).

상기한 입지특성과 여타 요인에 의해 KIBS 기업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여들어 전문화된 집적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숙련노동력 풀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전문화된 투입요소의 활용, 지식과급, 경쟁과 혁신 등의 이점을 가져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집적경제)를 창출한다. 이러한 집적지의 고도화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에도 37개 시·군·구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특화도, 집적도, 규모, 성장성을 갖춘 총 86개의 KIBS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동희·박지혜, 2013). 전반적인 입지분포를 살펴보면, 단위 지역 차원에서 전체의 64.9%인 24개 지역, 지역별-업종별 차원에서 전체의 79.1%인 68개 집적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강남구, 서초구)은 전문디자인, 광고, 건축·조경설계, 시장·여론조사,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세무, 컴퓨터서비스, 엔지니어링 등이 종합적으로 집적된 국내 유일무이한 비즈니스서비스업 핵심지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강남권 집적지의 현재와 미래가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실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일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이 지역을 전형적인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성공모델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 또한 그 경험과 성과를 체계화하여 지방 대도시로 확산 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패턴은 세부업종이 가진 이질적인 지식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문디자인, 광고, 건축·조경설계와 같은 비기술적, 창의적 지식에 바탕을 둔 업종은 서울시 강남권에 고도로 집적된 단핵 공간분포 구조를 갖는 반면, 엔지니어링, 기술시험검사 등 기술적,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분야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규모 수준의 제조업 거점도시(청주, 창원, 거제, 포항 등) 위주로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요인이 각 세부업종별로 차별화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별 지식특성과 지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해 전략적 육성이 가능한 세부업종을 지역별로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입지요건 강화에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3] 국내 지식집약 비즈니스서비스업(KIBS)의 입지패턴

지식 특성	세부업종	지리적 집중도	주요 집적지	집적지 규모주
비기술기반 창의형	전문디자인, 광고, 건축·조경설계	고도 집중	서울시 강남권	중대형
비기술기반 전문형	시장·여론조사, 경영컨설팅	고도 집중	서울시 상업중심지	중소형
	법무	상대 집중	서울시	중대형
			광역시	초소형
	회계·세무	약한 집중	서울시 및 일부 광역시	주로 소형
기술기반 창의형	연구개발	상대 집중	서울시 주변 및 일부 광역시	주로
	SW개발·공급	고도 집중		중대형
기술기반 전문형	컴퓨터프로그래밍·SI,	상대 집중	서울 및 주변도시	중대형
	정보서비스			소형
	엔지니어링, 기술시험분석	약한 집중	전국 중급이상 도시	초소형
	측량지질지도		없음	-

자료 : 이동희·박지혜(2013)

주 : 집적지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대형(1만 명 이상), 중형(5천 명 이상), 소형(2.5천 명 이상), 초소형(2.5천명 미만)으로 구분

3. 입지특성을 활용한 산업육성 전략

2000년대 들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전략적 비즈니스서비스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인력양성, 투자확대, 수요창출, R&D 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즈니스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관련 정책은 비즈니스서비스업 자체의 성장보다는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보조적 기능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 경향이 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산업단지제도 등 입지지원책 측면에서도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진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노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공간적 입지특성을 활용한 산업육성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암묵적 지식이 혁신의 중요한 기재로 작용하는 KIBS 부문은 집적을 통한 성장 패턴을 쉽게 가진다는 점에서 집적활성화를 통한 클러스터(cluster)의 개발이 비즈니스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지리적 집중 성향이 높은 세부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주요한 집적요인을 파악하여 잠재력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형성·발전을 촉진하는 입지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산업육성 방안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서 지역별로 특화된 비즈니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집적과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차별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디자인, 광고, 건축조경설계, 시장여론조사, 경영컨설팅 등이 고도로 집적된 서울 강남권은 클러스터로 성공할 잠재력이 높은 만큼,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소프트 기반 강화, 지역 브랜딩 등을 통해 향후 국제적인 비즈니스서비스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기술시험분석 등 특화된 지방 생산도시의 경우에는 수요고객인 인근 제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집적지를 고도화시키는 전략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공급자의 공간적 밀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접 산업단지 내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제도의 측면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집적활성화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비즈니스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특화단지(지구)의 조성 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산업단지 유형도 생산, 연구개발, 서비스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시설규정 및 지원제도의 차별화를 검토해 볼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현정 (2009), 『산업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비즈니스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제396호.
- 이동희·박지혜 (2013), 『국내 지식집약비즈니스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3-196.
- Keeble, D. and Nachum, L. (2002), "Why do business service firms cluster? Small consultancies, clustering and decentralization in London and south Eng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7(1), 67-90.
- Kox, H. L. M. and Rubalcaba, L. (2007), "Analysing the Contribution of Business Services to European Economic Growth ", in Rubalcaba, Luis and Henk L.M. Kox (eds.), Business Services in European Economic Growth, Palgrave Macmillan.
- Rubalcaba, L., Gallego, J., Gallo, M. T. & Garrido, R. (2013), "Business services location and market factors in major European cities", Cites 31, 258-266.
- Shearmur, R & Alvergne, C. (2001), Intrametropolitan Patterns of High-order Business Service Lo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eventeen Sectors in Ile-de-France, Urban Studies 39(7), 1143-1163.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
포
트

■ 마로니에 공원 활용 방안

안창섭(종로구청 문화과 문화사업팀)

마로니에공원 활용 방안

안창섭

종로구청 문화과 문화사업팀

20090213168@mail.jongno.go.kr

I. 마로니에공원 조성

1. 공사개요
2. 주요시설

II. 시설별 운영 현황

1. 좋은공연 안내센터
2. 야외공연장
3. 다목적홀

III. 마로니에공원 활용 방안

1. 공공기관의 공연 추진
2. 외국공연의 유치

I. 마로니에공원 조성

1. 공사개요

- 사업기간 : 2012. 1. 6. ~ 2013. 9.
- 위 치 : 종로구 동숭동 1-124일대 (마로니에공원)
- 면 적 : 9,100㎡ (공원 5,800㎡, 공원 외 3,300㎡)
- 사업내용
 - 건 축 물 : 건축면적 323.77㎡, 연면적 997.90㎡ (건폐율 5.58%)
 - 수목식재 : 마로니에 등 11종 10,835주
 - 포장현황 : 장대석포장 등 2,744㎡
- 사 업 비 : 6,068백만원 (시비 5,600 구비 468)

2. 주요시설

가. 야외공연장

- 규 모 : 806.40㎡
- 구 조 : 야외무대 천막구조 및 계단식 마당
- 용 도 : 각종 공연 및 행사

나. 건축물

- 규모 : 지하2층, 지상1층
- 건축면적 : 323.77㎡(연면적 997.90㎡)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외부마감 : 화강석(C-BLOCK) 혼드, T28 투명컬러복층유리(스틸창호)

〈표 1〉 건축물 각 층별 용도

구 분	용도	면적(㎡)
지하2층	다목적홀	142
	부대시설 (휴게공간 등)	98
지하1층	관리사무실	18
	공연준비실 (2개소)	14
	용 원 실 (2개소)	20
		16
	화 장 실	42
	주민단체사무실 A (세미나실)	24
	주민단체사무실 B	19
지상1층	좋은공연 안내센터	98
	마로니에카페	35
	화 장 실	82

3. 마로니에 씬지무대

- 사업기간 : 2013. 12. 11. ~ 2014. 02. 25.
- 위 치 : 종로구 동숭동 1-119 (마로니에공원과 예총회관사이)
- 면 적 : 220㎡ (무대 140㎡, 바닥정비 80㎡)
- 사업내용 : 예총회관 앞 야외무대 조성
- 용 도 : 각종 공연(거리공연 중심)

II. 시설별 운영 현황

1. 좋은공연 안내센터

- 공연안내 시설 : 홍보물 비치대(7조), 키오스크(3개)
- 주요기능 :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주변 관광안내 및 홍보, 정보검색, 티켓판매

- 근무인원 : 3명
- 관리방법 : 민간위탁(한국소극장협회)
- 이용현황(1일 평균) : 방문 210여명, 전화민원 50건, 티켓판매 800건

2. 야외공연장 및 공원

- 야외공연장 : 각종 공연 28회(2014년 상반기)
- 공원 : 마르쉴@혜화(매월 1회), 건축학과 대학생 파빌리온 전시 등

3. 다목적홀

- 이용일수 : 98일(2014년 상반기)
- 내용 : 연극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워크숍, 각종 회의 등
- 주요행사 :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연극제 연극공연, 시민문화 연극교실(매주 화), 우리동네 예술학교(매주 수,목), 마르쉴@혜화 워크숍 등

III. 마로니에공원 활용 방안 및 요건

1.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

마로니에공원에서의 축제, 행사, 공연은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는 공연장의 보호·육성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연장 방문의 유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며, 단지 마로니에공원이 최종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 각 극장의 연극공연 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도심 속 공원

마로니에공원은 도심 속 주택가와 서울대학교 병원 등과 인접해 있어 자칫 대형 음향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음으로 인해 반발이 발생한다.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공연에 적용할 수 없으나 밴드 공연 등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선교활동, 정당행사 등 공연과 거리가 먼 행사, 모금행위, 상행위 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3. 공연시기의 정례화

마로니에공원에서의 각종 행사 및 축제, 공연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가면 항상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예측과 기대감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현재 공공적 성격을 갖는 ‘아시테지’ 겨울축제 및 여름축제, 한국소극장축제, 서울연극제, 한국공연예술센터의 마로니에 여름축제, 마르쉐@혜화 등은 정례화 되어 있다.

4. 국제공연의 유치

마로니에공원은 주한 외국공관에도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는 것 같다. 이에 따라 브라질, 스페인, 인도 등 주한 외국공관에서 문화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종로구는 외국공관과 공연관련 MOU를 체결하여 문화의 날 행사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다목적홀



세미나실



삼지무대



다목적홀 연극 모습



좋은공연 안내센터



마로니에공원 전경



마로니에공원 표지석



좋은공연 안내센터 내부

<그림> 마로니에공원 참고사진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의 서비스업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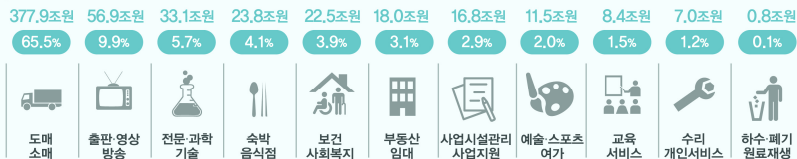
서울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76.6조원이며 부가가치 비중은 전산업 중 91.7%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0.1억원으로 전국의 1.8배

서비스업 부문별 매출액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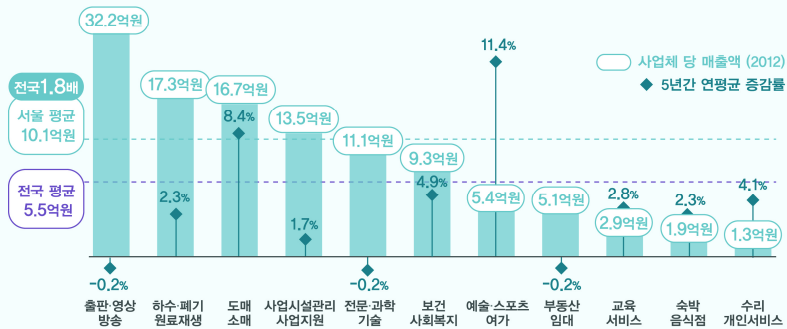
서울 서비스업
매출액 총액(2012)
576.6조원

부가가치 비중
91.7%

자료 : 지역소득조사 (통계청, 2012)



서비스업 부문별 사업체 당 매출액



서울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576.6조원이며 부가가치 비중은 전산업 중 91.7%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0.1억원으로 전국의 1.8배

- 서울 서비스업 매출액 총액은 576.6조원으로 ‘도·소매’ 부문이 65.5% 차지
 - 서울 전산업 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7년 88.4%에서 2012년 91.7%로 증가
 - 서비스업 매출액 총액은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이 377.9조원(65.5%)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그 다음으로는 ‘출판·영상·방송’ 56.9조원(9.9%), ‘전문·과학·기술’ 33.1조원(5.7%), ‘숙박·음식점’ 23.8조원(4.1%)

-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0.1억원으로 전국의 1.8배이며, ‘출판·영상·방송’ 부문 매출액이 가장 큼
 - 서울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을 상회하는 부문은 ‘출판·영상·방송’ 32.2억원, ‘하수·폐기·원료재생’ 17.3억원, ‘도매·소매’ 16.7억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3.5억원, ‘전문·과학·기술’ 11.1억원
 -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숙박·음식점’, ‘수리·개인서비스’ 업종은 사업체 당 매출액이 전국 평균보다 하회
 - 연평균 증감률은 ‘예술·스포츠·여가’가 11.4%로 가장 크게 증가

〈표 1〉 2007~2012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단위: %)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88.4	89.5	90.3	90.5	91.3	91.7
전국	58.6	58.6	58.9	57.3	57.0	57.5

자료 : 지역소득조사 (통계청, 2007~2012)

〈표 2〉 2012 서울 서비스업 부문별 사업체 당 매출액

(단위: 백만원)

	사업체 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5년간 연평균 증감률
도매 및 소매업	225,830	377,886,884	1,673	8.4%
숙박 및 음식점업	122,439	23,799,004	194	2.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46	771,420	1,730	2.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663	56,855,363	3,219	-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214	18,010,593	511	-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423	16,755,290	1,349	1.7%
교육 서비스업	29,158	8,370,754	287	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231	22,517,912	929	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450	11,500,697	536	1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370	7,028,321	127	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677	33,074,136	1,114	-0.2%
서울 서비스업 (합계)	573,901	576,570,374	1,005	6.6%
전국 서비스업	2,577,503	1,428,408,702	554	6.6%

자료 : 서비스업부문 조사 -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통계청, 2007, 2012)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 · 약 | 4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4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3.2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4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1%, 13.5%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기

소 비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764억원으로 전국(5조9,624억원)의 34.8%를 차지
- 4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4%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14.4% 증가

고 용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1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1.4%)이 증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9%p 증가,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물 가

- 2014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0.07%) 특히 동대문구(0.38%)와 도봉구(0.1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5% 상승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북지역(0.38%) 특히 동대문구(0.82%)와 은평구(0.5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30% 상승

금 융

- 서울의 4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8조 8,654억 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그 중 가계대출은 179조 2,657억 원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 서울의 4월 신설법인수는 2,418개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2% 증가
- 서울의 4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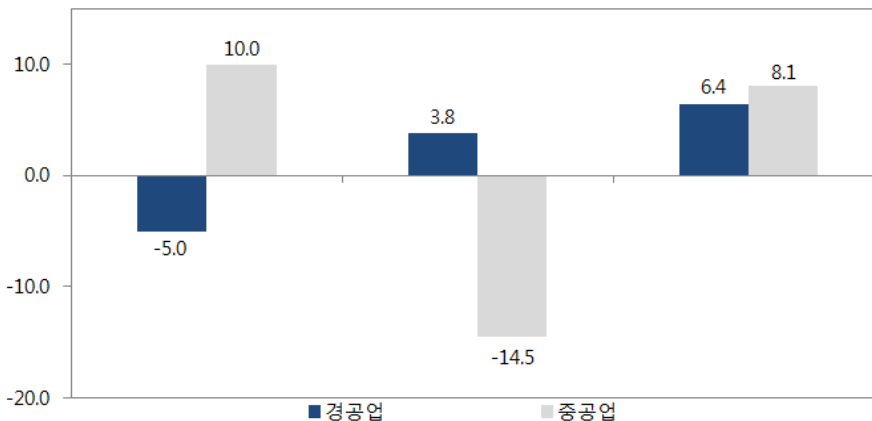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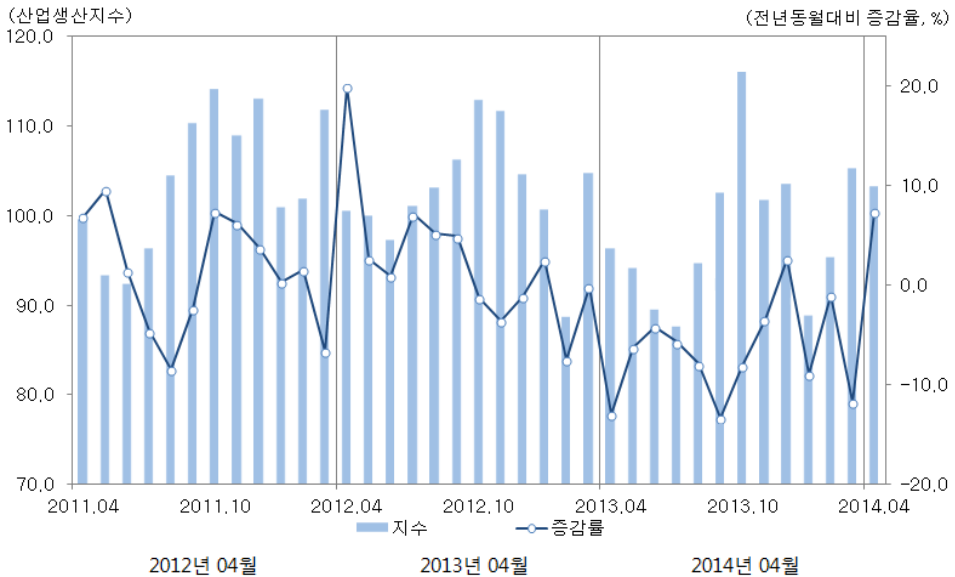
수 출 입

- 서울의 4월 수출은 5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7.9%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4월 수입은 1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9.7%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4월 제조업생산지수 103.2(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각각 8.1%, 6.4% 증가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2.1%), 전기장비(31.6%), 의복 및 모피(13.3%) 등 증가, 전기·가스·증기업(-23.0%), 의료정밀광학(-17.9%), 인쇄 및 기록매체(-11.2%)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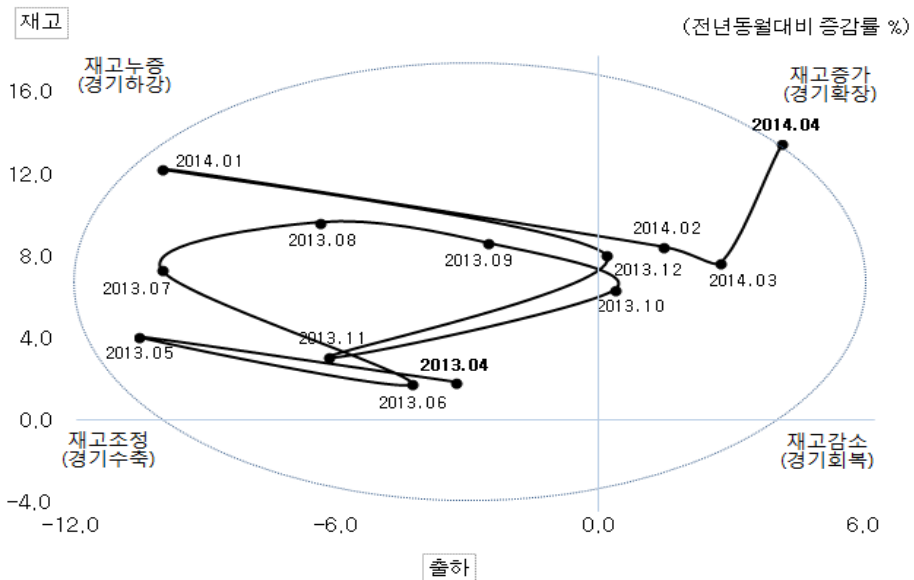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4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104.1(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118.7(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
- 출하, 재고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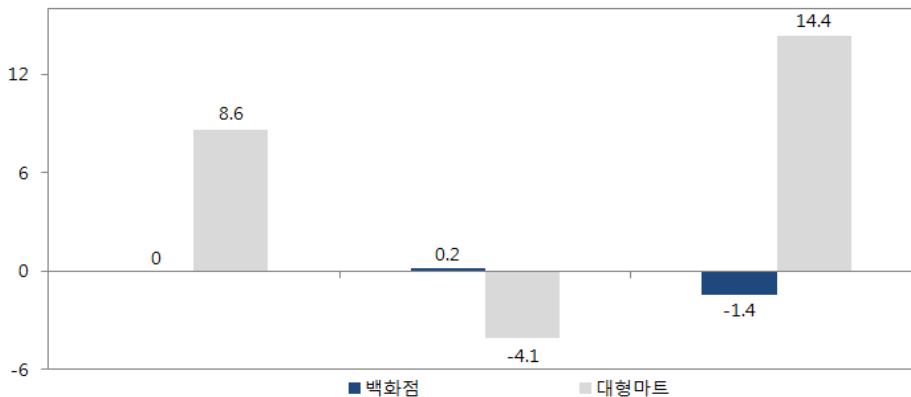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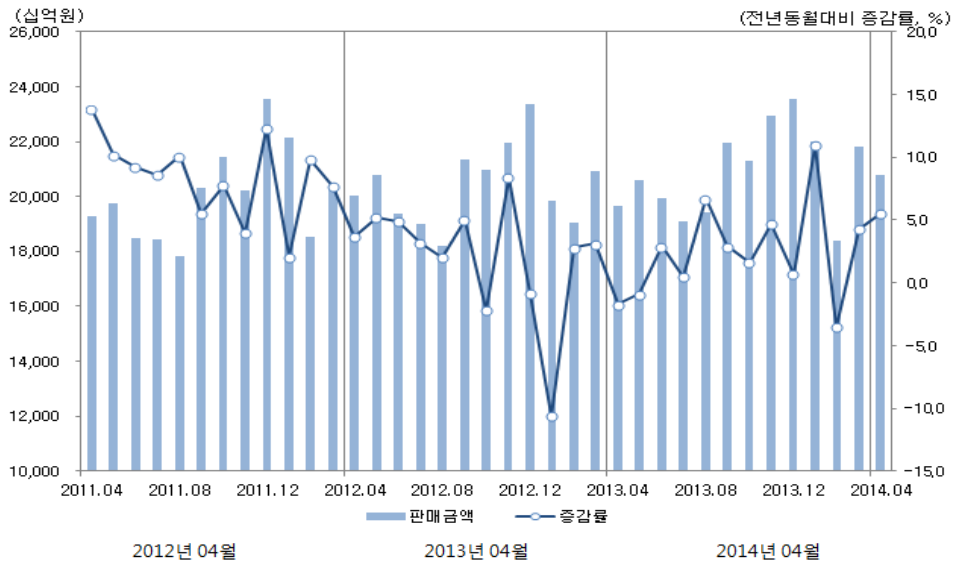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764억원으로 전국(5조9,624억원)의 34.8%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931억원으로 전국(2조3,698억원)의 46.1%, 대형마트 판매액은 9,832억원으로 전국(3조5,925억원)의 27.4%를 차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4로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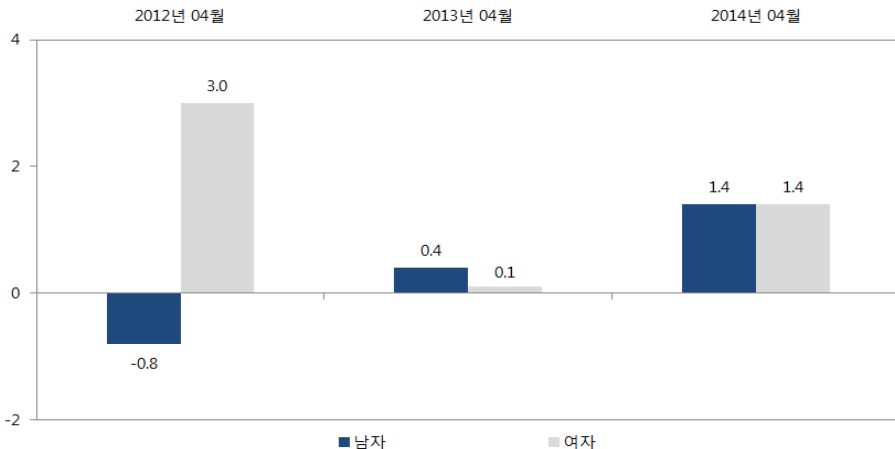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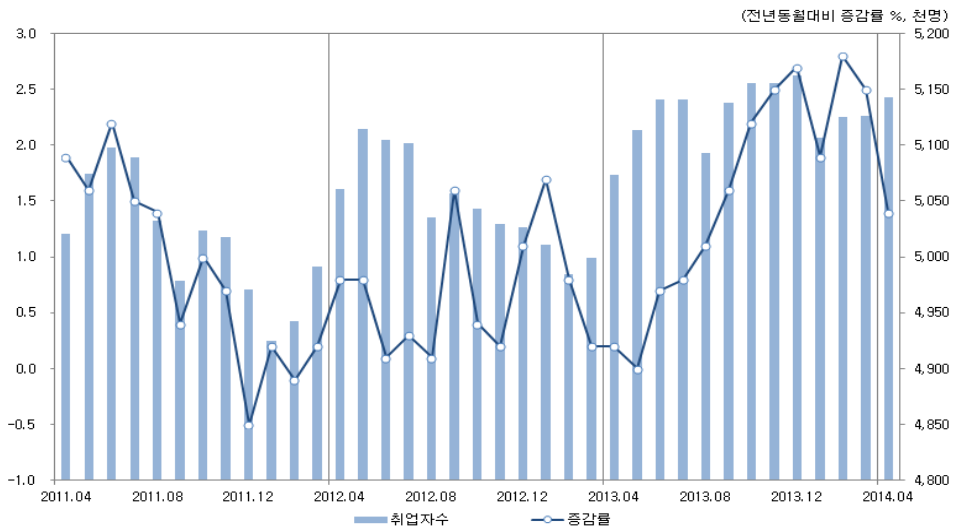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1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1.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8만2천명, 여자는 22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만9천명(1.4%), 여자는 3만1천명(1.4%)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9만8천명(7.5%), 제조업 3만4천명(7.4%)이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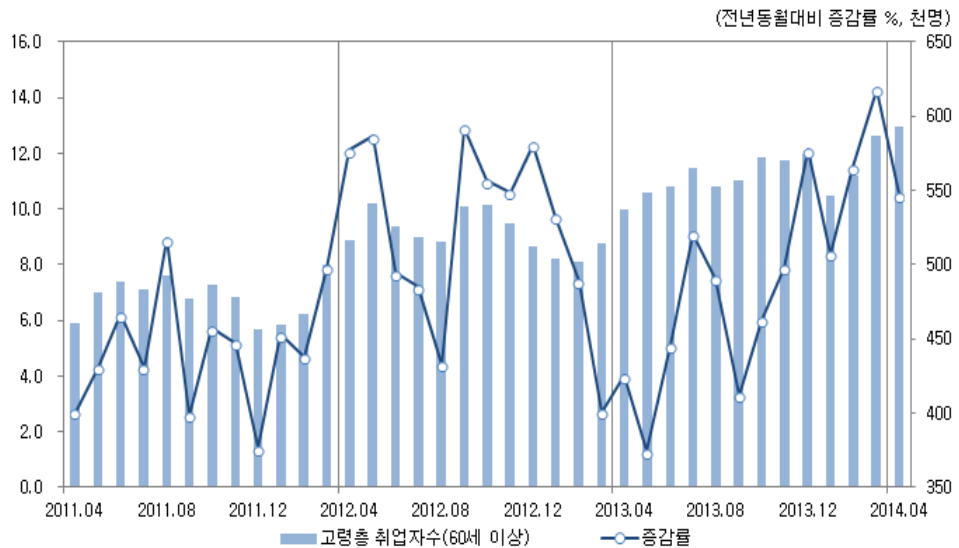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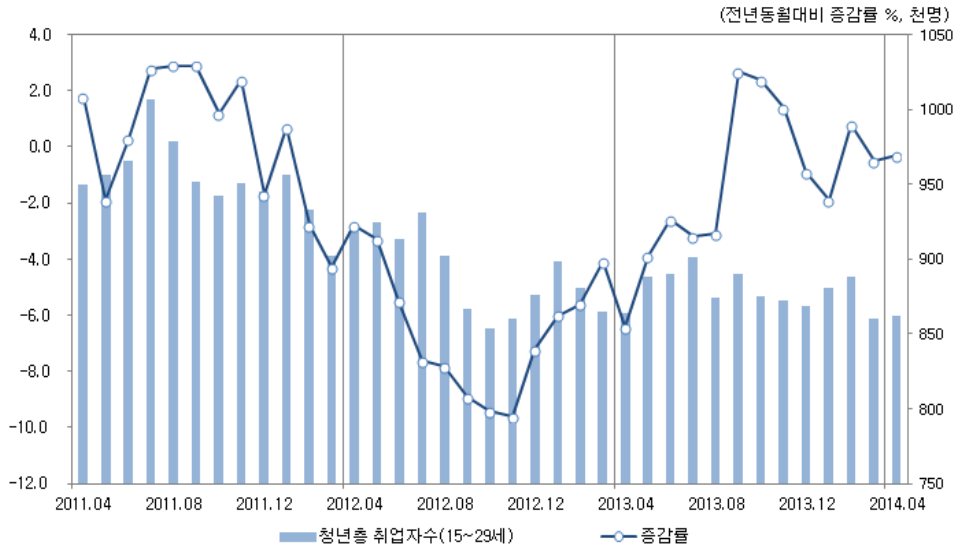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증감률은 마이너스, 고령층(60세 이상)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9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5%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은 2개월 연속 주춤하여 고령층과 대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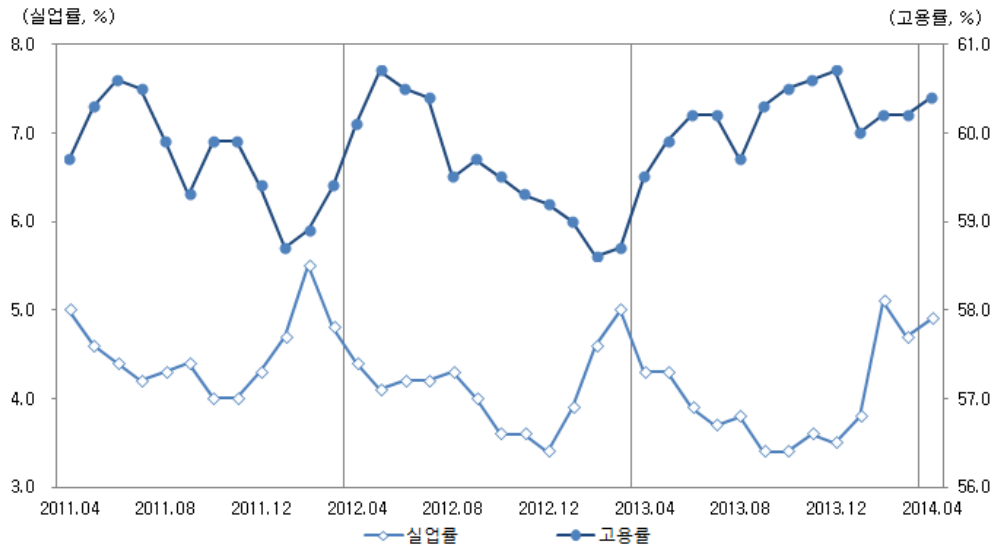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4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9%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6%로 전년동월대비 1.2%p, 여자는 51.0%로 0.6%p 각각 증가
- 2014년 4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6%)보다 0.2%p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6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1천명(18.0%)이 증가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자는 5.1%로 0.6%p 각각 상승
- 2014년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9%)에 비하여 1.0%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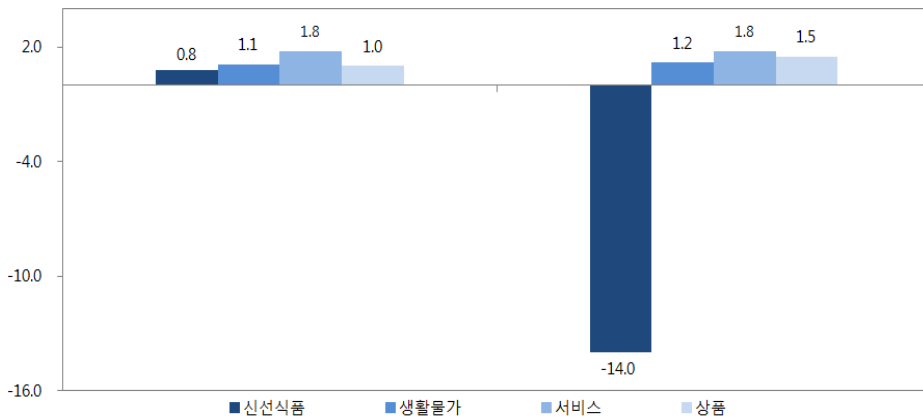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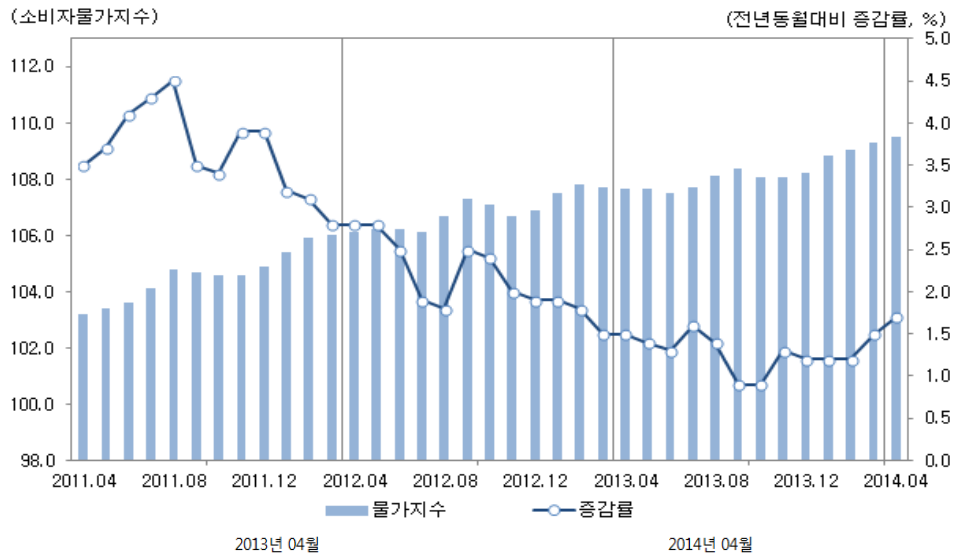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2014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교통(-0.6%),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5%), 주류 및 담배(-0.3%)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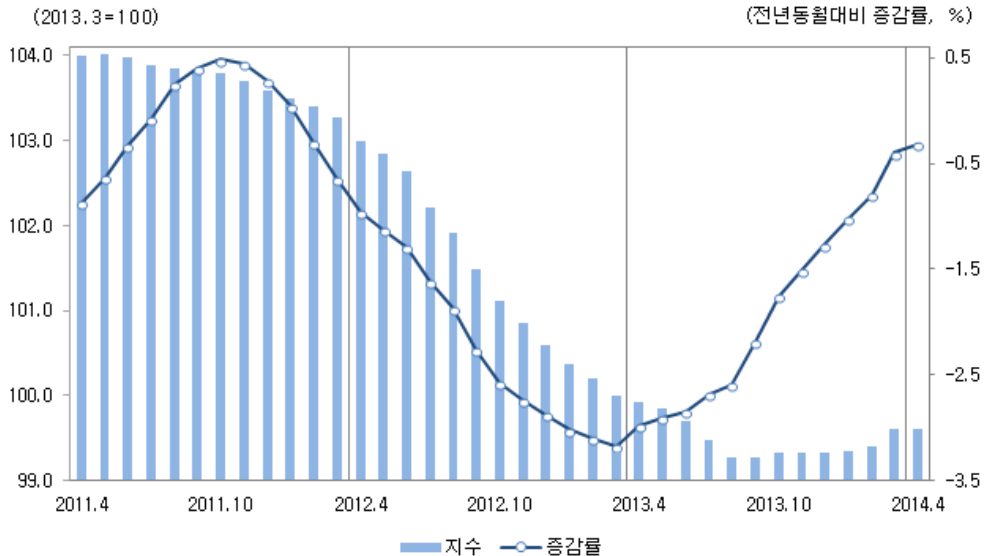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5% 상승

- 강남지역(0.04%), 강북지역(0.07%)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동대문구(0.38%), 동작구(0.20%), 도봉구(0.12%), 구로구(0.12%)
- 아파트(0.08%), 단독주택(0.04%), 연립주택(-0.01%)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21% 상승

- 광역시(0.35%), 기타지방(0.23%), 수도권(0.13%)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감소,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32만원)은 전월(1,633만원)대비 0.04% 감소
- 매매거래건수(8,536건)는 전월(9,485건) 대비 10.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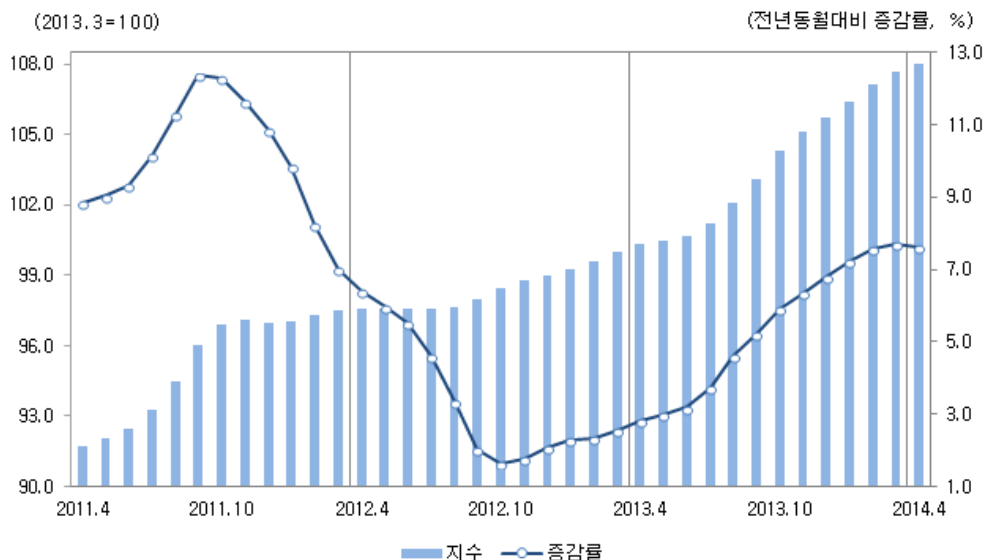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30% 상승

- 강북지역(0.38%), 강남지역(0.23%)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동대문구(0.82%), 영등포구(0.56%), 동작구(0.55%), 은평구(0.52%)
- 아파트(0.37%), 연립주택(0.27), 단독주택(0.12%)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35% 상승

- 수도권(0.38%), 광역시(0.38%), 기타지방(0.25%)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1,007만원)은 전월(1,002만원)대비 0.5% 증가
- 전세거래건수(9,520건)는 전월(10,799건) 대비 11.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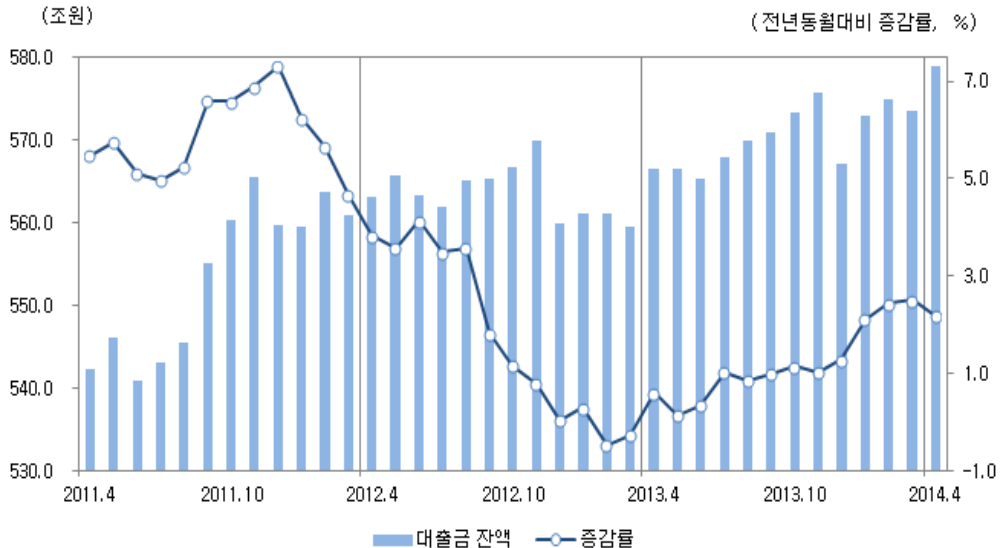
| 가 · 계 · 대 · 출 |

■ 4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578조 8,654억원)은 전월(573조 4,640억원)대비 0.9% 감소
- 그 중 예금은행(473조 8,598억원)과 비예금은행(105조 5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증가, 6.5% 감소

■ 4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50조 1,610억원)은 전월(1,534조 9,850억원)대비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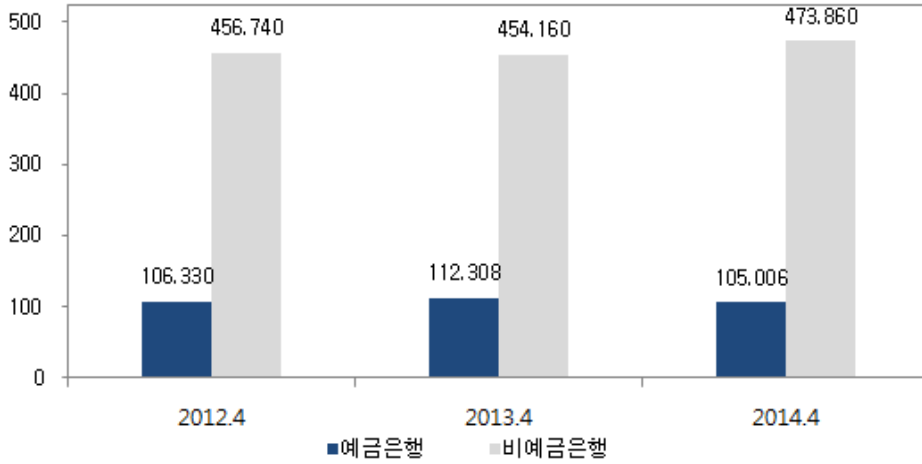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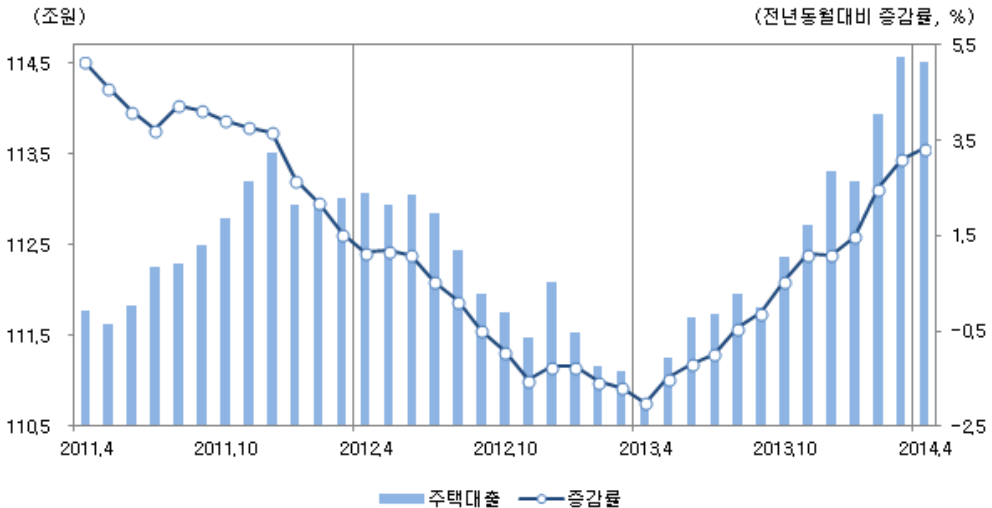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4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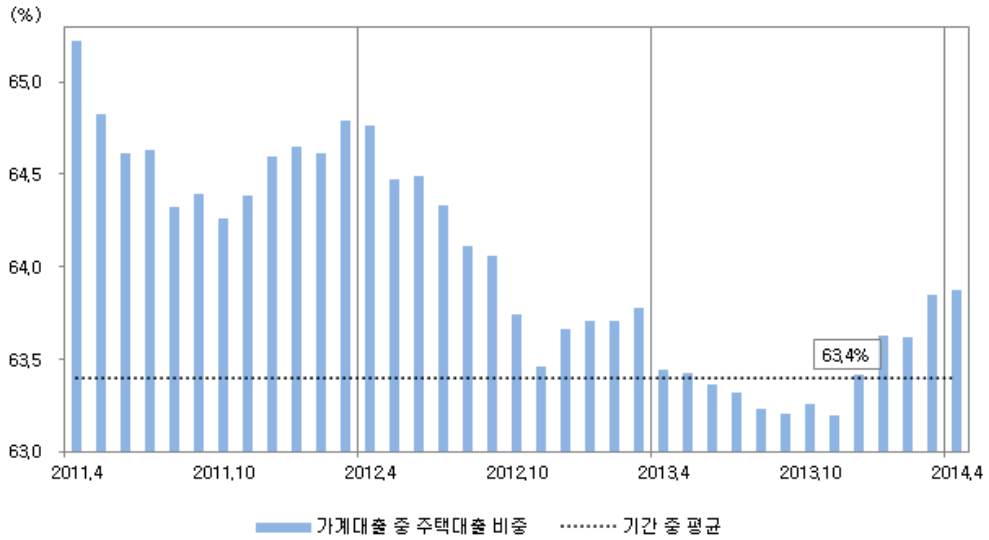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9조 2,657억원)은 전월(179조 4,298억원)대비 0.1% 감소
- 그 중 주택대출(114조 5,045억원)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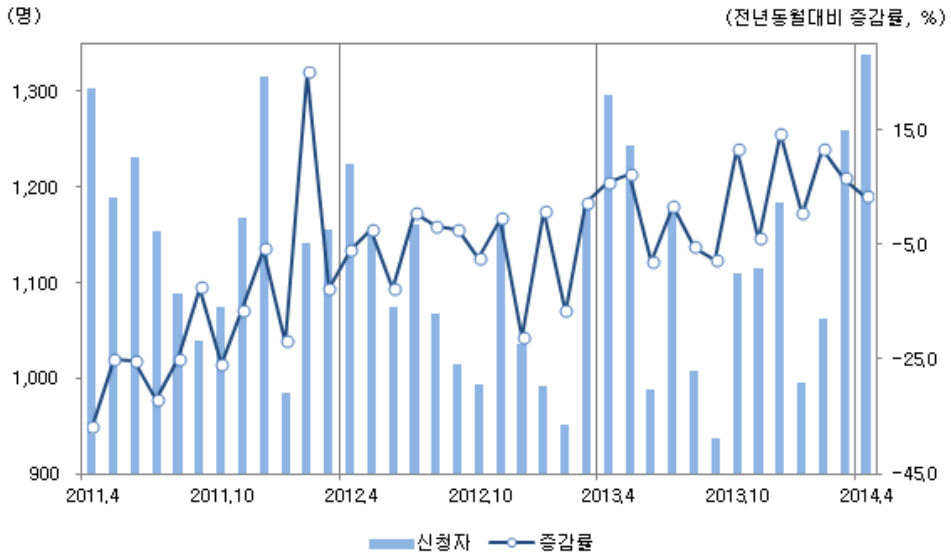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338명)은 전월대비 6.2% 증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6.4%)은 전년동월대비 230.8%p 증가, 면책 기각률(4.2%)은 전년동월대비 152.4%p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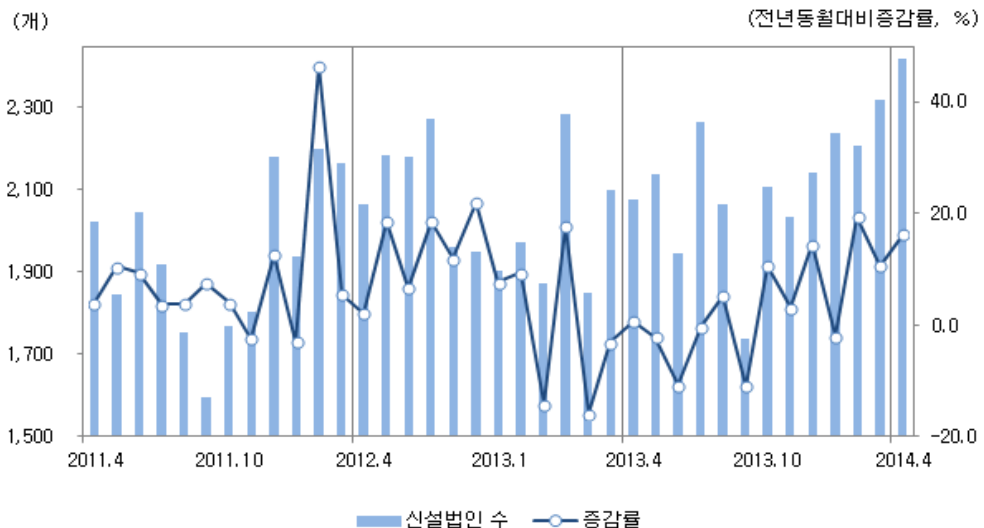
| 신·설·및·부·도·법·인 |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418개로 전월대비 4.2%(97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6.4%(340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전월대비 제조업 17.2%(48개), 건설 및 설비업 5.6%(7개), 서비스업 1.2%(23개)로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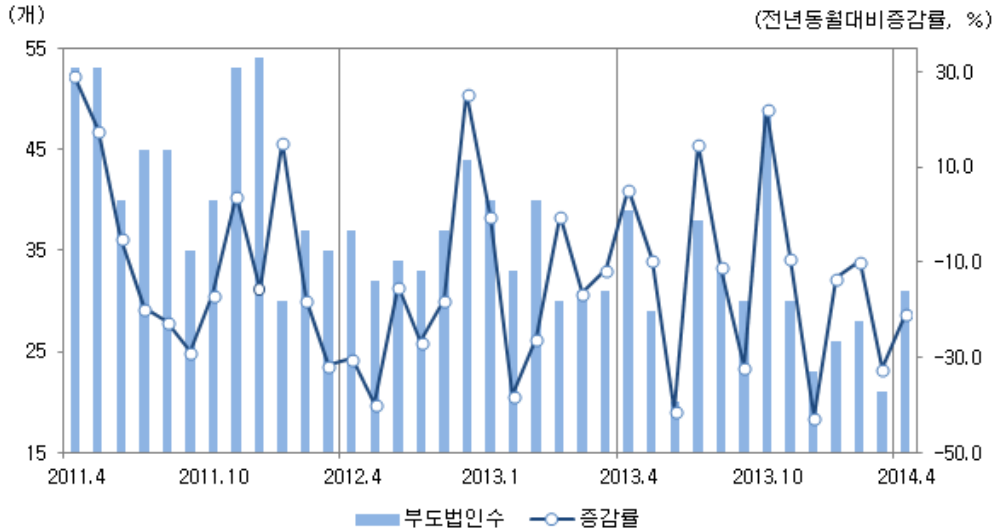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1개로 전월대비 47.6%(10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8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각각 266.7%(8개), 88.9%(8개) 증가,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62.5%(5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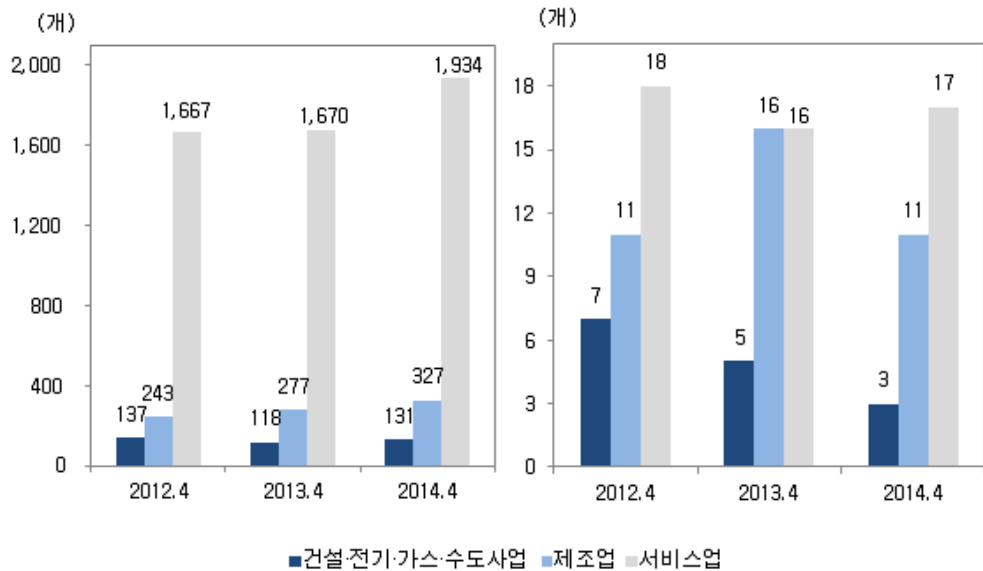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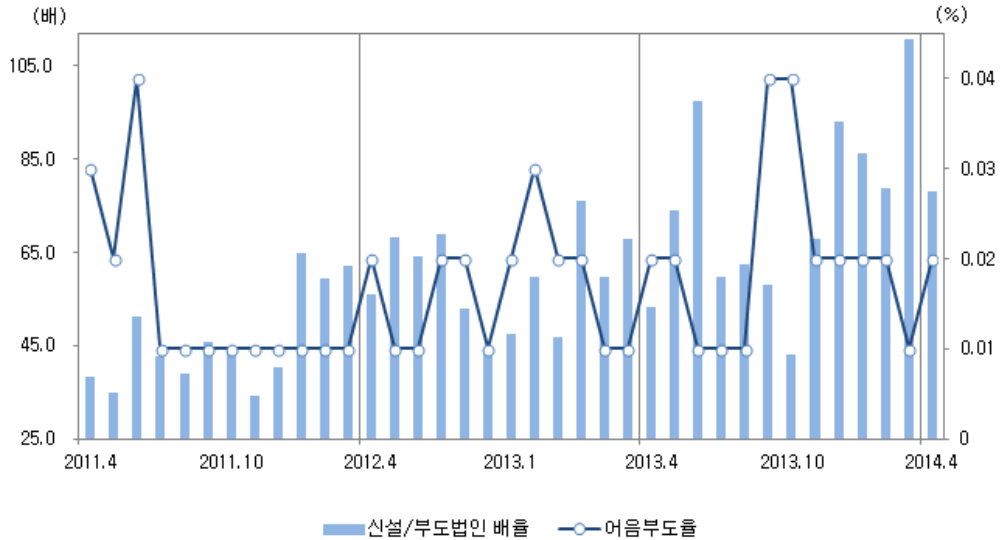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 및 부도법인 현황

■ 4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78.0으로 전월 (110.5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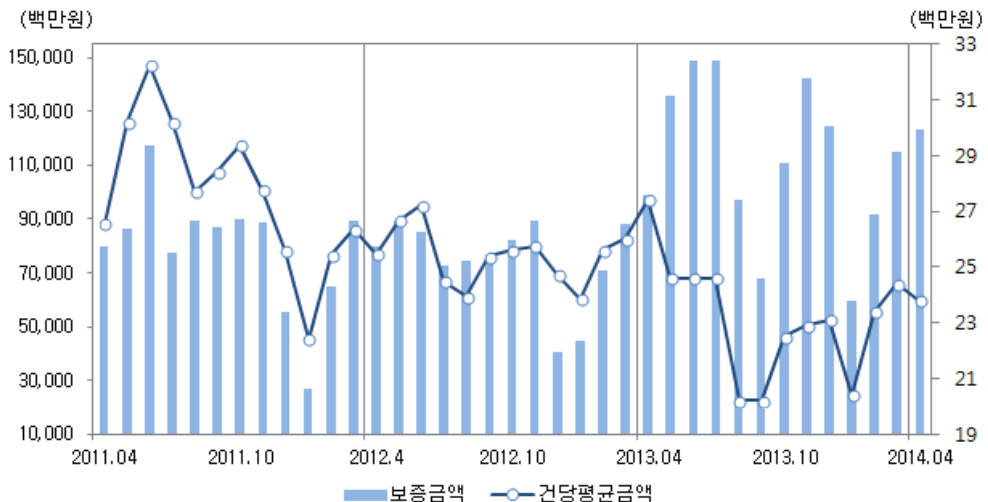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4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23,538백만원, 5,185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7.2%, 9.9%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4.9%, 43.4%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3.1%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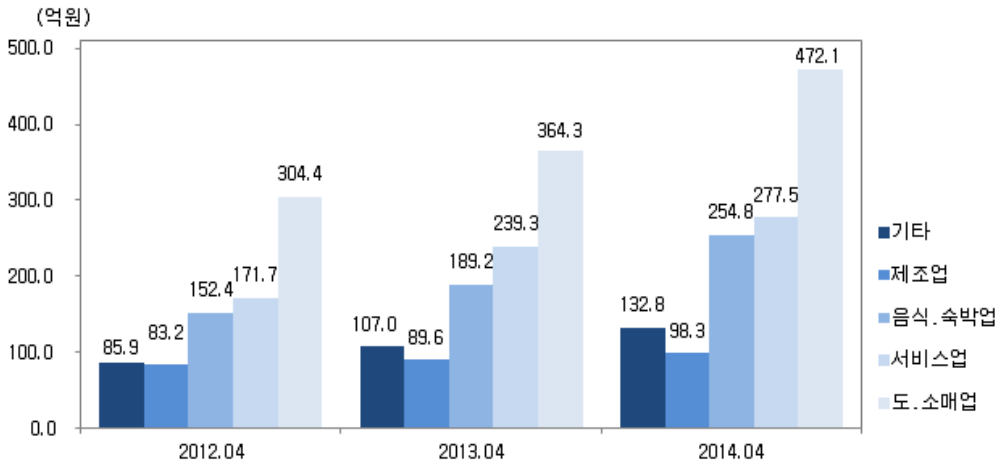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4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0%로 전월(8.5%) 대비 0.5%p 감소한 반면, 도 · 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8.2%로 전월대비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6.8%로 전월(7.0%)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도 · 소매업종은 34.6%로 전월(35.2%)대비 0.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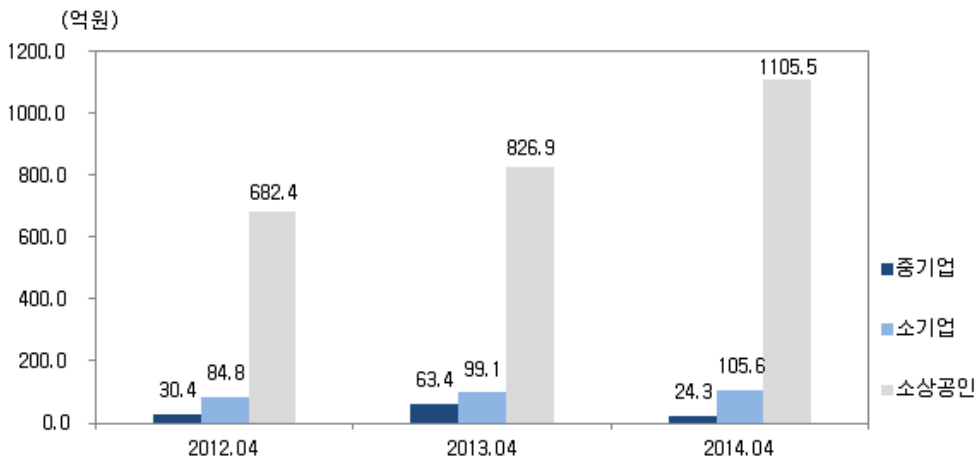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5%로 전월대비 1.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6.0%로 전월대비 0.3%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6%로 전월대비 2.8%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3%로 전월대비 0.7%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0%로 전월대비 1.5%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7%로 전월대비 0.4%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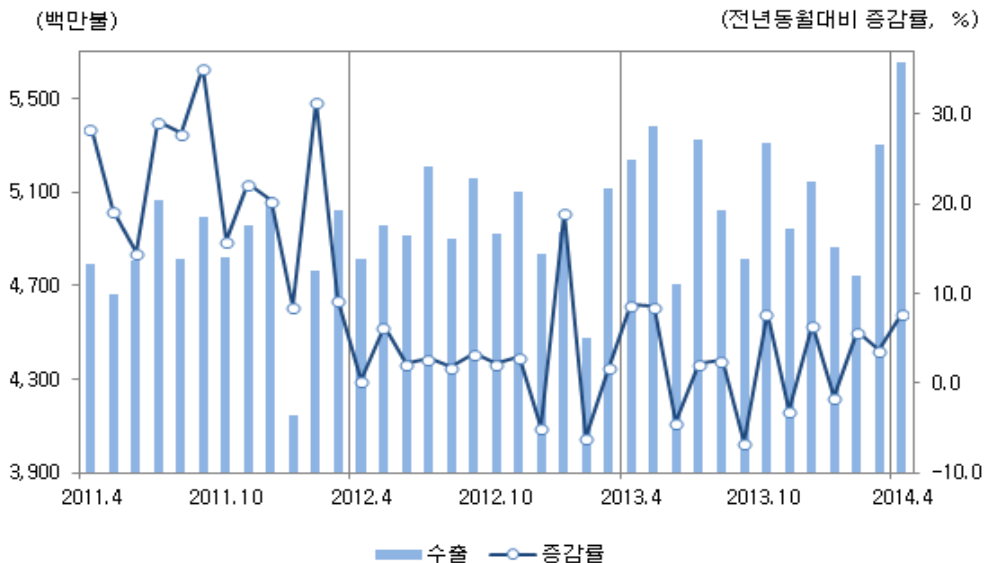
| 수 · 출 · 입 |

■ 서울의 4월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6.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하였고 수입은 119.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9.7% 증가
- 전국의 수출은 503.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하였고 수입은 458.5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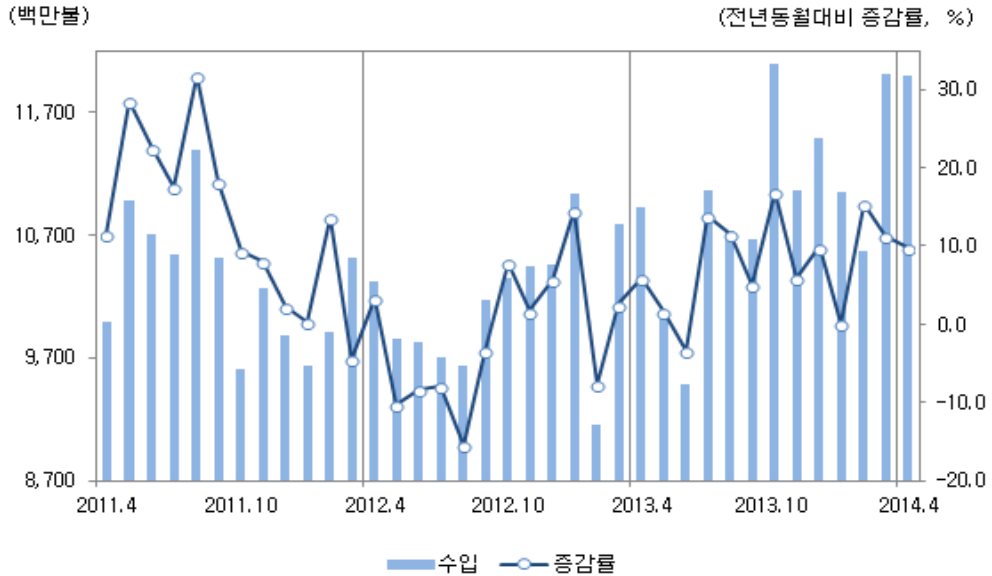
■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568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25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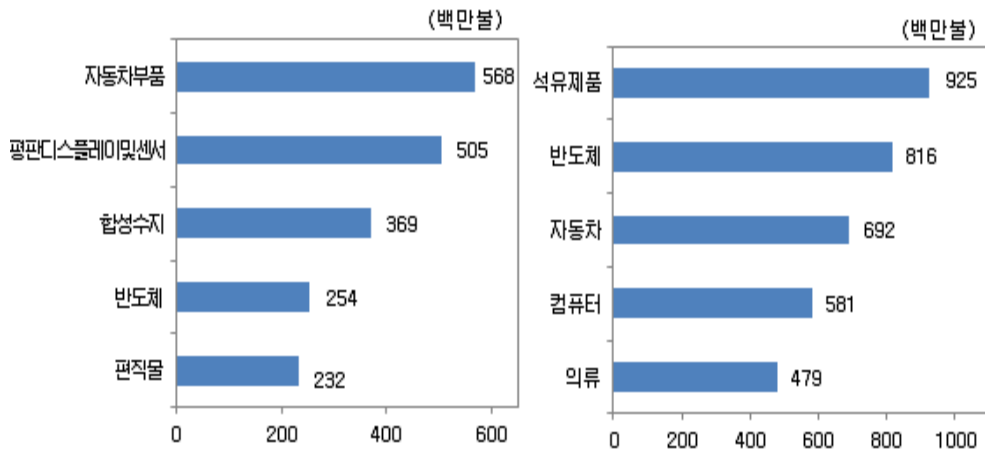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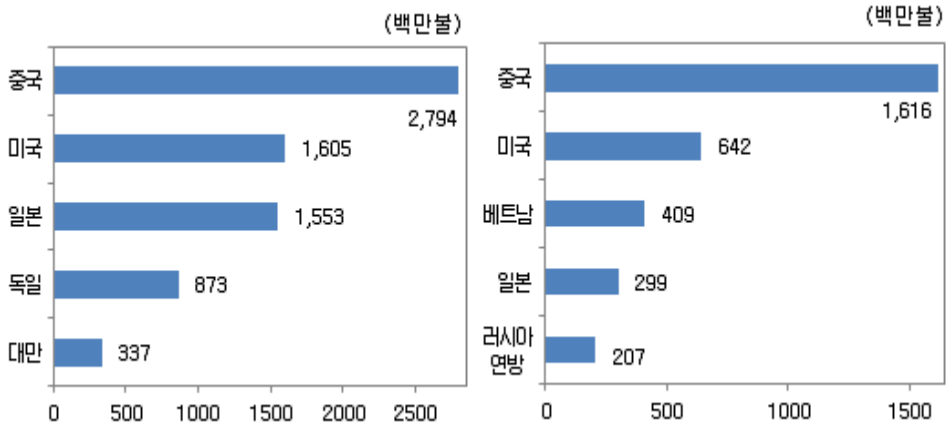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4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한 1,61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한 2,79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4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4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4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4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4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4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4월중 어음부도를 동향」
 한국은행, 「201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